



김동진

김진규

■ 허정무호 내일 밤 9시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북한전

“북한 빠른 역습 우리가 막겠다”

김동진·김진규·강민수·오범석 포백

허감독, 스리톱 라인 구성 막판 고심

허정무호가 끈끈한 조직력과 다양한 공격전술을 앞세워 7회 연속 월드컵 축구 본선 진출 드라마를 준비한다.

축구대표팀은 10일 밤 9시(한국시간) 중국 상하이 흥취우스타디움에서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1차전을 치른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6년 독일월드컵을 경험한 베테랑부터 2008 베이징올림픽에 나섰던 영간까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허정무호는 지난 1일 시작된 소집 훈련부터 꾀 말리는 주전경쟁을 펼쳐왔다.

허 감독은 지난 5일 요르단과 평가전에서도 선발 멤버에 23세 이하 선수를 7명이나 포함해 선수들의 경쟁 심리를 자극했다. 북한과 결전이 치러질 상하이에 도착한 뒤에도 ‘신구 조화’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북한의 촘촘한 밀집 수비와 빠른 역습을 막기 위해 선수들은 선수들의 패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허 감독은 북한전 선발 라인업에 대해 “항상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민 중이다”고 얘기했지만 지난 7일 첫 훈련부터 요르단과 평가전에 나섰던 멤버들이 대부분 주전조에서 훈련해 큰 틀을 바꾸지 않았다는 속내를 살짝 드러냈다.

우선 포백(4-back)에는 김동진(제니트)-김진규(서울)-강민수(전북)-오범석(시마리) 조합이 요르단전에 이어 또 한번 북한의 역습을 막아낼 든든한 방어벽을 친다.

3차 예선을 치르면서 다양하게 포백라인을 구성했던 허 감독은 요르단 평가전을 마지막으로 ‘포지션 실험’을 끝내고 조직력 완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역습에 대비한 중앙 수비라인의 끈끈한 호흡을 원했던 허 감독은 지난해 베어백호 시절부터 올해 올림픽대표팀까지 2년 넘게 ‘찰떡궁합’을 맞춘 김진규와 강민수에게 후방을 맡겼다.

중원에서는 정확한 침투패스를 앞세운 김두현(웨스트브롬)과 드리블이 뛰어난 기성용(서울)을 앞세우고 김남일(빗셀 고베)이 뒤를 받치는 역삼각형의 공격적

인 배치를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스리톱 공격라인 구성은 허 감독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5-4-1 전형을 구사하는 북한의 두터운 수비를 뚫으려면 전방에서 휘저어줄 공격수가 필요하지만 요르단전에서 보여준 김치우(서울)-조재진(전북)-이청용(서울) 라인의 파괴력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다.

후반에 조재진 대신 투입한 신영록과 서동현(이상수원) 역시 K-리그에서 보여줬던 골 결정력에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다.

더욱이 기대를 많이 했던 이천수(수원)가 복귀와 함께 수술의 여파로 아직까지 정상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허정무 감독은 “북한의 전력이 3차 예선과 비교할



강민수

오범석



앤서니 김 아쉬운 3위

PGA BMW챔피언십 최종

제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사진)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에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세 번째 대회 우승컵을 넘겨 줬다.

앤서니 김은 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벨트리아이브 골프장(파70·7천456야드)에서 열린 BMW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7타를 치며 주간전을 펼쳤지만 합계 12언더파 268타로 짐 퓨릭(미국)과 함께 공동 3위에 머물렀다.

페덱스컵 점수 4천900점을 얻은 앤서니 김은 중간합계 10만8천918점으로 지난 주 7위에서 6위로 한계단 올라섰다. 그린에 바짝 엎드려 라인을 읽는 습관 때문에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비에가스는 15언더파 265타로 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마지막 날 3언더파 67타를 친 최경주는 합계 11언더파 269타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金’

광주체중 안재민

승리중 이계현

전남체중 전성현

전국 아마복싱선수권

안재민(광주체중 2)이 제40회 전국아마여복싱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재민은 8일 제주 동홍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중부 60kg급이하 결승에서 이재우(인천 서곶중)를 2-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이계현(광주 승리중 3)은 75kg급 이하 결승전에서 김동현(대구 덕화중)을 2회 RSC로 꺾고 역시 금메달을 따냈다. 또 전성현(전남 체중 1)은 88kg급이하에서 문석민(광주 승리중)을 4-3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金’

광주체고 황준호

신형근

상무고 고영효

회장배 전국수영대회

황준호(광주체고 2)가 제57회 회장배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황준호는 8일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 자유형 200m에서 1분53초06으로 금빛물살을 갈랐다. 신형근(광주체고 3)도 평영 100m에서 1분05초88로 금메달을 따냈으며 자유형 1천500m 고영효(상무고)는 16분06초 83으로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창봉(한체대 1)은 남자대학부 평영 100m에서 1분05초66으로 대회신기록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김달은(HI코리아)과 최수민(HI코리아)은 각각 여자일반부 접영 50m와 배영100m에서 역시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 북구청 최철규 우승

전국 실업검도대회

최철규(24·광주 북구청)가 제5회 주계전국 실업검도대회에서 우승했다.

최철규는 지난 7일 경기도 부천시 송내사회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서울 관악구청 김정권을 맞아 먼저 머리 치기를 허용해 1-0으로 패색이 짙었으나, 잇따라 머리치기를 성공시켜 2-1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최재기호기 lion@kwangju.co.kr



한국 김규대 육상 400m T54 스피드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 남자육상 400m T54 경기에서 한국의 김규대(가운데)가 피니시 라인을 바로 앞에 두고 막판 스피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초반 부진…金 소식 ‘감감’

문애경 女 10m 공기권총 ‘銀’

제13회 베이징장애인 인을립픽에 출전중인 한국선수단이 초반 부진에 긴장하고 있다. 종합 14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문애경은 8일 베이징사자경장에서 열린 사흘째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합계 463.2점을 기록해 467.7(374+93.7)점을 쏜 중국의 린하

이안에게 밀려 어렵게 은메달에 그쳤다. 문애경은 예선에서 린하이얀과 같은 374점을 쏘아 2위로 오른 뒤 결선 초반에는 1점 대 차를 유지하며 금메달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지만 다섯발째에서 6.6점을 기록, 결국 2위에 만족해야 했다. 배영이는 예선에서 364점을 기록, 8명이 겨루는 결선에 7위로 올라간 뒤 연장전인 32강

오후 끝에 머물렀다.

남자 10m 공기소총에서는 장성원, 한태호, 심재용이 예선에서 일제히 탈락하는 부진을 보였다. 이들은 각각 9위(심재용), 10위(장성원), 17위(한태호)를 기록해 한 명도 결선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이로써 한국 사격은 이번 올림픽에서 은 1, 동메달 1개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올림픽그린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훈련에 출전한 황명희는 여자 단식 32강

전에서 이탈리아의 실비아 데 마리아를 세트스코어 2-0으로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했다.

장애인 특화종목인 보치아에 출전한 한국은 최연소자인 박건우(18)가 3회전에서 태국 선수를 8-2로 물리치는 등 4명 모두 8강에 진출하는 호조를 보였다.

탁구도 전날에 이어 순항했다. 8번재 금메달을 노리는 이해곤은 2회전에서 독일의 휴거 니켈리스를 세트스코어 3-2로 꺾었고 정영일과 조재관도 2회전에서 각각 쿠바와 슬로베니아 선수를 3-2로 이기고 3회전에 진출했다.

올림픽 주경기장인 귀자티위장(國家體育場)에서 열린 육상 남자 400m 예선에 출전한 김규대는 역주에도 불구하고 4위로 끝이면서 결선 진출이 좌절됐다.

/연합뉴스

박태환에게 포상금 1억 전달

대한수영연맹(회장 심홍택)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메달을 수확한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에게 포상금으로 1억원을 전달한다.

수영연맹은 11일 오후 3시30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올림픽 메달 및 신기록 포상금 전달식을 갖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 및 아시아신기록, 자유형 200m 은메달 및 아시아신기록을 작성한 박태환에게는 1억원이 준비됐다. 또 박태환을 전달 지도한 노민상 대표팀 총감독에게는 5천만원이 주어진다.

/연합뉴스